

이 달의 책

마음 바꾸기

영혼의 스승인 '아피사'의 가르침을 쉬운 말로 풀이해 놓은 책이다. 그 가르침 한 구절, "무엇이든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을 먼저 이루어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크고 깊은 가르침일수록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기 아주 힘들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마음 바꾸기'가 '마음 바꾸기'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저자 가령 다르제이 지음
박영달 옮김
쪽 146쪽
값 3500원
불교출판사

고려말 내용의 선사상 연구

한국 불교사에 있어 선사상의 완숙기이자 쇠퇴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고려말의 고승인 나옹 혜근(懶菴 惠勤 1320~1376)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법통설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 쇠기모니불의 후신 또는 조사로서 숭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증명 법사로 추앙된 점, 선(禪)을 실천의 도로 파악하고 대중 구제에 적극 활용한 결과로 오늘날 한국 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조복환 지음
서신 양장 296쪽
값 10000원
민족사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

고향이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바람이 비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까닭이다. 그 결과 우리의 고향은, 적막강산 아니면 도시의 한 귀퉁이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기, 비록 책 속에서지만, 우리네 지난날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시인 이형권 씨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옛집, 서원, 절집에서 옛 사람의 지혜와 우리네 고유의 마음결을 찾아낸 것이다.



이형권 지음
쪽 246쪽
값 5000원
대불주사



오색 시리즈 3(과반제)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인간의 삶을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조명한 '오색 시리즈'의 세번째 책.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서 찾아낸 57가지 이야기를 통해 '마음공부' 길을 열어 보인다. 관습 또는 타성의 감옥으로 갇힌 일상을 한순간에 박살내 버리는 파격이 있는가 하면, 오랜 여운을 남기는 잔잔한 이야기들도 있다.

귀미려 지음
배민정 역
쪽 450쪽
민세



법문 스님의 통일로 가는 길

현실의 한복판에서 불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온 법문 스님이 제시하는 통일로 가는 길.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민족 살리기,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가깝고 멀리 살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법문 지음
쪽 174쪽
값 10000원
정토출판



악석 신화엄경론

'화엄의 바다'라는 비유가 시사하듯, 화엄경의 세계는 넓고도 깊다. 어설피게 들어갔다 가는 표류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악석 화엄경을 통하면 광대한 화엄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의 조직 체계를 네 권으로 집약하여 그 핵심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한 다음 대가들의 논수에 의거하여 화엄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허위적거린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형권 지음
포산 옮김
쪽 494쪽
값 10000원
민족사



원효 설화의 미학

한국 정신 문화의 고갈되지 않을 공백인 원효의 세계를 설화를 통해 파헤친 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원효 관련 저술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은 접근 방식에 있어 아주 새롭다. 이른바 설화 정승의 한 축인 '수용자'들의 세계를 살피는 데 노력의 대부분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라는 '텍스트'보다는 그것을 낚은 '컨텍스트'—1300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오대익 지음
서신 양장 346쪽
값 10000원
불교은혜사



금강경 강의

대만 총통의 국사를 역임한 불교계의 원로이자 대석학인 남회근 선생이 1980년대 대만에서 강의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모두 군소리가 될 것이므로 출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던 남회근 선생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한다.

3장 12부를 부처께서 모두 다 말씀하셨는데 또 뭐 할만한 말인가? 모두 끝났다는 것인데 이미 말한 것은 다 지나간 것이야. 출판은 무슨 출판인가?

남회근 지음
신원봉 옮김
서신 양장 402쪽
값 20000원
민세출판사



용수의 공사상 연구

종교적 깨달음과 개념적 표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된 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자는, 2개기에 생존했던 용수(龍巖)의 공사상 즉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표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그는 '공성'이라는 표현을, 인간의 무지와 집착을 털어내기 위한 '전환적 인격의 수단'으로 파악하며, 용수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로이데어 스톨름 지음
남수영 옮김
서신 405쪽
값 9000원
시문사

『스태디컬러 찾아가기』

백암록



안동림 역주
쪽 86쪽 50쪽 / 값 8000원

선(禪)은 언어와 문자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러나 짓궂게도 선의 언어는 치밀하고도 정교하다. 바늘 들어갈 만한 틈도 보이지 않는, 금강석같이 단단한 언어가 바로 선의 언어인 것이다. 보라, '불립문자(不立文字)'나 '직지인심 경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니 하는 말에서 한 치의 헛참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들도 선의 태도나 방법론을 보여주는 것일 뿐.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궁극의 경지는 그러한 말의 외피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 세계에서는 '말'과 '말'이 다투어다. 제자가 스승의 면상을 잡기도 하고 몽둥이를 해 대기도 한다. 그러나 제자의 행동에서 궁극을 확인할 때, 스승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순간엔 마치 전광석화과 같아서 한 조각이라도 사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온전히 말을 떠난 자리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일 수는 없다. 선사의 '말'과 '나'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못해 처리하든 그렇다고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말'과 '말'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형태로 일러 준 한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회두는 '동천 막대기'요 '돌' 일의 '젓나무'다.

언어이되, 철저하게 만지를 거는 언어이다. 관습을 꼬집고 타성을 비트는 괴팍스럽게 딱이없는 언어이다. 생각의 그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언어이다.

이리하여 회두다. '동천 막대기'요 '돌' 일의 '젓나무'다. 언어이되, 철저하게 만지를 거는 언어이다. 관습을 꼬집고 타성을 비트는 괴팍스럽게 딱이없는 언어이다. 생각의 그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언어이다. '백암록'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진수를 보여 준다. 선의 그 깊은 세계를 최고 순도의 시적 언어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암록은 선종의 '중문제일서(中門第一書)'라 불린다.

『백암록』은 설두(雪竇) 선사가 쓴 본적(本則) 및 송(頌)에 원오(圓悟) 선사가 붙인 수시(垂示), 차어(題語), 평향(評唱)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00가지의 본칙은 회두에 해당하며, 송은 이 회두에 대해 설두 선사가 읊은 선사이다. 본칙 앞에는 설두의 제자 원오가 후학들을 위해 붙인 수시가 있는데 이는 본칙의 요점을 해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원오는 주석에 해당하는 차어와 평향을 달았는데, 본칙과 송에 대한 총괄 성격의 문장이 평향이다. 그러나 현암사 관 번역본에서는 차어와 평향을 생략하고 해해나 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덧붙임: 몇 권의 번역본 중에서 현암사 판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말 번역문이 단정할 뿐 아니라 책의 모양새도 가장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학설과 권위는 고증을 친필한 주로 소개하고 있는 번역자의 노력은 단연 돋보인다.

윤재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독자를 배려하는 불서 출판이 이 쉽다

'초등학교도 읽을 수 있는 책',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경전', '초심자들을 위한 고려사...' 신간서적이 출간될 때마다 따라붙는 거창한 소개말이다. 과연 신간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서 의문은 쉽게 풀린다. 이러한 소개말은 저자나 출판사의 독단적 입장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독자들은 불서를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우선 불교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한문 경전으로 된 것만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불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들은 쉽게 풀어 쓴 책,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 등의 미사여구를 영업 전략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불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앞서 독자들의 입장을 보다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나 출판사의 입장에서 쉬운 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독자와 직결되는

한 지식 부족과 한문 경전으로 된 것만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불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들은 쉽게 풀어 쓴 책,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 등의 미사여구를 영업 전략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불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앞서 독자들의 입장을 보다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나 출판사의 입장에서 쉬운 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독자와 직결되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입 전략은 이러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입점 책의 속성이다. 속이 알차면 독자들은 누구나 쉽게 다가가기 마련이다.

물론 출판사들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법(法)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불교 지식 신간의 황폐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잠깐! 독서



불교와 평화

법문 지음
쪽 296쪽
값 5000원
정토출판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 환경 파괴 등 지구촌 위기의 극복을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책이 있다.

다움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 세상/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랑/ 마음이 많은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미혹한 증세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온갖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평화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울림이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다. 『사』(善은법)의 법문 스님이 강 의했던 내용들로 모두 4편의 글을 실고 있다.

다움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 세상/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랑/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첫째 장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의 과제 -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인종간, 민족간, 계급간, 이상간, 종교간 갈등의 문제에 대해 살피면서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장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에서는 우리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셋째 장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불교적 대안'에서는

불자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 장 '원효의 화평 - 불교의 평화'에서는 불교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다툼과 의견 불일치가 결국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고 사상으로 정립한 원효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 1 네 발밑부터 살피라 - 정년 역음/ A5신 292쪽 / 장승 / 값 7,500원
- 2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 윤정관 지음/ A5신 248쪽 / 지식산업사 / 값 8,000원
- 3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큰스님 지음/ B6 184쪽 / 장경각 / 값 3,500원
- 4 화엄의 길, 생명의 길 - 도법 스님 지음/ A5신 328쪽 / 선우도량 / 값 8,000원
-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일연학연구원 역음/ A5신 340쪽 / 불교시대사 / 값 10,000원
- 6 수행으로 가는 길 - 이재일 지음/ A5신 258쪽 / 대원정사 / 값 6,000원
- 7 기도 - 일타 스님 지음/ A5신 238쪽 / 효림 / 값 5,000원
- 8 비람의 길 - 석지현 지음/ A5신 266쪽 / 민족사 / 값 5,500원
- 9 니도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 홍신자 지음/ A5신 288쪽 / 안그라픽스 / 값 7,500원
- 10 남마다 좋은 날 - 지묵 스님 지음/ A5신 298쪽 / 우리출판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 보내드립니다. 8000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경지동 110-33
전화: (02)737-0635, 732-1521
팩스: (02)737-0696

- 여시아문 편집부 -



이 책을 말한다

『절을 찾아서』

산사에 어린 눈물과 웃음, 구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 기행집.

김종근 기자

산에서 일기 시작한 불꽃이 사람들의 가슴을 활활 태우기 시작했다. 특히 고즈넉한 산사의 단풍은 지고한 법향과 어우러져 신심을 한층 북돋워 준다. 오래 불자들은 가을이면 붉게 물든 산사를 떠올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 재촉한다.

시인 고은 그도 이러한 마음엔 어쩔 수 없었다. 오려진 시적 감흥이 더 되살아났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걸쳐 명산과 명찰 곳곳을 유람하며, 1천5백 년 이상 우리 민족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온 산사에 어린 눈물과 웃음, 구도의 역사를 시인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탐미적 감성으로 그려냈다. 고은 문화기행집 『절을 찾아서』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 나그네가 되어 대자연과 유구한 역사 속에 순정된 불심으로 구현된 기암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내일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모태인 불교문화의 시인과 부흥, 스러짐과 발전의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보며 1천

5백 년 유구한 불교사를 조망하고 있다.

구도하는 방랑자의 심정으로 산사를 유람하는 시인은 동해 낙산사에서부터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의상대 일출을 감상하고 난 후 동해의 큰 파도 앞에서 '조선의 설화'를 떠올린다. 외로운 여행지에서 인생사상의 비감을 느낀 시인은 삼악산 4층사,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 추풍령을 넘어 신라 불교의 정암한 도량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으로 구름처럼 내려간다. 1천5백 년 전 신라 석공의 만치소리와 새벽 정적을 깨우는 최북도의 숲에 동해를 지키는 변함없는 석굴의 존재를 확인하고 애국불심의 현상 해인사를 거쳐 다시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라온다. 도심의 불심을 경계한 후 전등사, 신복사를 거쳐 충청도로 내려간다.

비오는 밤주사의 웅장한 기암 속에 절과 함께 흠뻑 젖은 시인의 여수(遊水)는 비운의 백제 역사를 간직한 고관사, 계룡산 절기에 웅비해 있는 동학사, 감사를 지나 민족 고난의 산 증인 지리산 중턱에 있는 화엄사, 내소사, 선암사 등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가며 절정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바다 멀리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 귀암의 땅에 일으켜 세

운 보살의 절, 관음사를 둘러봄으로써 장대한 기행을 마감한다.

산 15곳 사찰 46곳을 두루 돌아보며 아름다운 우리의 신화와 정암한 불교 유적을 한눈에 바라본 이 책은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사찰 장면에 관한 역사,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창건한 용주사, 3년여 동안 미곡사에 사미로 입산한 백담 강구 선생의 자취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의 정암과 역사가 시인의 서정적 손길을 통해 응태된다. 깊어가는 가을, 호젓한 산사를 찾아 지친 심신을 달래거나 우리 문화유산의 흔적을 되찾아 내일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고은 시인은 이 책에서 산천을 떠돌며 스스로에게 던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때로는 경건하고 신성한 불지의 태도로, 때로는 현안이 속된 속인의 모습으로 산사를 떠돌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소망한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새삼 신비스러워지면, 누구나 그런 신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에 감사하고 싶고 그런 감사로 가득 찬 몸을 그 신비 안에 내던지고 싶어진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새삼 신비스러워지면, 누구나 그런 신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에 감사하고 싶고 그런 감사로 가득 찬 몸을 그 신비 안에 내던지고 싶어진다."